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여름, 히로시마는 인류 최초로 피폭 도시가 되었다. 1945년 8월6일의 일이다. 그해 연말까지 약 14만 명이 희생되었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다. 이로부터 1년 후 일본은 이른바 평화 헌법을 갖게 되었고, 4년 후에는 히로시마가 국제평화 문화도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있다. 2016년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이래 관람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150만 명이 이곳을 찾았으며 이중 40만 명이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8월 6일의 히로시마를 생각하며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운영자들이나 피스투어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반응을 상당히 궁금하게 여긴다. 한국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감을 잘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매우 착잡한 심정을 가진다. 히로시마의 피폭을 침략국에게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피폭자의 약 10%가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근래에는 대량살상무기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인 사이에서 우세해지고 있다.

전후 일본 정치가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고 약간이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8월 6일의 히로시마'를 평화로 읽을 것인가, 천벌로 읽을 것인가, 치욕으로 읽을 것인가는 사회 지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제였다. 그러나 근래에 점증하고 있는 우익 내셔널리즘의 와중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있다. 최근 한일 간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

전쟁을 보면서, 히로시마와 가까운 곳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를 묻는 것도 우문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한일 우호 협력은 1993년의 고노 담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 한데 아베의 이번 결정은 한일 간 우호 협력의 기초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아베 총리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종종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과거의 침략을 부인하는 '망언'을 통해 심사를 굶은 적은 있어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협력을 훼손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행보가 단순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논쟁과 같은 탈식민 프로젝트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는 거의 대동해진 한국의 경제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였다는 경제전문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잠재적 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까지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열이나 승패 프레임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과도한 경제 의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호소하는 외교, 그리고 일본 평화주의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과 견강한 시민사회를 구별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청춘 특·특



정지희
조선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불붙는 대학생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이 과거사와 관련해 수출 규제를 예고한 후부터 일본산 브랜드 펜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간 국산 펜도 많이 발전해 이를 대체할 필기가 많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 브랜드의 의류 매장에도 발길을 끊었다. 주머니 사정에 맞으면서 질도 좋은, 일명 '가성비'가 높은 유니클로 의류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였다.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히터스라는 제품은 대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었다. 때문에 이번 불매 운동 초기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니클로 본사 CFO 오카자키 다케시가 한국 소비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매 운동이 크게 번졌다. 불편을 토로하던 친구들도 더 이상 입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최대 신발 종합 매장으로 자리잡은 ABC마트도 일본 브랜드다. ABC마트의 경우 여러 브랜드의 신발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수시로 진행되는 할인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애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ABE마트'(아베마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비난받고 있다. 일본의 화장품 또한 여대생들 사이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다. 시세이도의 뷰티, 케이트와 키스미의 아이메이크업 제품, 슈에무라의 립스틱과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이들 화장품을 '인생 화장품'이라고 부르며 평생 쓸 계획이라고들 말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이를 대체할 제품을 찾는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본 주류도 대학생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대학생들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류인데, 그 중에서도 맥주 브랜드의 상당수가 일본 제품이다. 과거에는 국산 맥주 외에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외국 맥주가 일본 맥주였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요근래 편의점 등지에 유입산 맥주 등 각양각색의 맥주가 우후죽순 늘어나 다른 선택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파급력 있는 불매 운동은 일본 여행 인기이다. 요즘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일본 여행을 꿈꾼다. 거리가 가까워 비행기 값이 덜 들고 치안도 좋을뿐더러 일본 상품들을 우리나라에서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와 스타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번 수출 규제로 일본 여행 자체를 취소한 사람들이 많다. 일본 제

품을 사지 않는 불매 운동과 다르게 여행 취소는 위약금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혹자는 수입이 많지 않은 우리가 일본산 불매 운동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역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젊고, 또 수입이 많지 않기에 가성비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해 왔으며 이번 어려움에도 어렵지 않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의 바탕에는 요즘 대학생들만의 역사 의식이 담겨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 피해자를 돕는 물품을 손수 구입, 착용해 SNS에 게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나서는 대학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불매 운동이 일제 강점기 시절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이주고 일본이 책임 있는 사과에 나서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한다.

社說

시민 안전 위협 '불법 건축' 주점 이리 많다니

27명의 사상자를 낸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 직후 광주시가 실시한 유사 업소 특별 안전 점검 결과 46곳에서 8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점검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등이 확인될 정도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최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사고 클럽과 유사한 감성 주점 7곳, 유흥 주점 74곳 등 모두 81개 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 가운데 클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증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안전 위반 22건, 불법 용도 변경과 위생 분야 각각 14건, 기타 건축 분야 5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서구의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북구 B노래홀은 일반 음식점을 유흥 주점으로, 동구

C클럽은 창고 일부를 클럽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차 점검 때 문을 열지 않아 내부 점검을 하지 못한 시설 23곳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복층 다중 이용 시설 100곳 이상을 대상으로 2단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건축 행위가 곳곳에서 드러난 이번 안전 점검 결과는 지역 사회의 안전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준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선 해당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지자체의 조치에도 바로잡지 않을 경우엔 시설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나머지 다른 유사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주 스스로 확고한 안전 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한순간에 20대 청년들의 꿈 앗아간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꿈 많은 20대 청년들의 인생을 파탄 냈다. 외동아들이었던 A씨는 지난해 교대에 입학해 교사의 꿈을 꾸던 착실한 스무 살 청년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로 그 꿈이 꺾이고 말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이다.

사고 당시 숨진 A씨와 함께 걷고 있었던 B씨 또한 같은 교대생으로 학교에서도 소문난 '절친'이었다. 이날 B씨는 교대 인근 술집에서 A씨와 함께 교사의 꿈을 이야기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드는 차량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 A씨가 자신을 대신해 숨졌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와 난 것은 지난달 28일 새벽 3시 40분경. 술에 만취한 운전자 C(28)씨의 차량이 A(20)씨와 그 친구 B(20)씨를 덮친 것이다. 음주운전을 한 C씨 또한 자신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밟고 의지해 온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C씨는 집안에서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에 내렸던 D씨의 직장 동료와 후배 D씨와 E씨 등 두 명도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D씨와 E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는데 이를 포함 모두 20대다. C씨는 강화된 '음향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엄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 사람의 음주운전이 다섯 청년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을 내고 말았다.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자신은 물론 선량한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했다.

無 等 鼓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질(痼疾)인 '오만병(病)'이 다시 도질 태세다. 경쟁 상대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바닥을 헤매면서 민주당 득점 구도가 다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 '호남 싸움'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과거의 공식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30일 마감된 민주당 관리당원 모집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중이 당원' 등 각종 불합법도 횡행, 앞으로 경쟁에서 '동원 전쟁' 등 각종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선 관리당원을 확정하면서 이를 바로잡지는 미지수다. 수개월 전부터 이 같은 폐해가 지적됐으나 민주당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득주 구도에서 구태어 스며 부수권을 만들 필요 있는 냐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는 좀처럼 바뀔 것 같지도 않다. 벌써부터 지역위원장 등 정치적 득권을 확보한 유력 입지자들은 거의 국

회원이 다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입지자들은 이미 국회 보좌진 구성에 나섰다든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 출신 여권 핵심 인사는 내년 총선 입지자들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인다. 정치적 줄 세우기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호남 정치의 위기 국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총선, 호남에서 폭발한 국민의당 태풍은 결국 민주당의 오만 심판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점을 벌써 잊은 듯하다. 정치적 오만은 대개 절실함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민심의 소중함을 간과하게 된다. 이는 호남 정치와 미래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치적 질병이 된다.

치유책은 경쟁을 통한 견제다. 경쟁은 독점보다 좋다. 이는 시장이나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다. 경쟁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출발한다. 내년 총선, 호남 민심이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 가길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오만과 경쟁

기 고

폐기 빌링스 여사를 추모하며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위원

예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국가 폭력 사태를 듣고 전율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그리고 광주와 한국을 위해 기도하였다. 문동환 목사가 대표 설교를 하였고 희생자 가족의 증언이 있었으며,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케네디, 제스 잭슨 목사, 유엔 대사 앤드류 영, 미 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날드 프레이저 등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에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의 예배는 광주의 비극을 북미 지역에 최초로 알린 행사로서, 광주 비극의 실체가 미국의 시민사회, 인권단체, 그리고 정치권으로 널리 알려지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미한국인권연맹(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이 주관하였다. 북미한국인권연맹은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워싱턴 DC에 설립된 대표적인 인권단체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의 인권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여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 신장을 위한 국내외 시민 투쟁을 음양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광주 항쟁기를 전후하여 이 단체

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국내의 언론 통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광주의 실상이 대부분 이 단체의 활동을 통해 미국 및 유럽 등지로 소개되었다. 광주가 무력으로 진압되던 날, 이 단체는 미국내 대표적 인권단체들과 연명으로 카터 행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방조한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 계통 인권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광주 항쟁 희생자 및 구속자 가족을 음양으로 도왔으며,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 생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던 폐기 빌링스(Peggy Billings)여사가 지난 7월 19일 타계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내에 뒤늦게 알려졌다. 1928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9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빌링스는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로 1954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 전쟁 고아와 노숙인을 돕는 사회 선교 사업에 종사하다가 1968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흑인 민권 운동과 반전 평화 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녀는 백인이면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셀마 행진(Selma March)에도 참여하였으며, 기독교계 동 여성 운동 단체에도 참여하여 여권 신

장에도 앞장섰다. 특히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보낸 탓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빌링스는 유신 헌법 제정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심해지자 미국의 인권운동가를 비롯하여 한국의 재야 인사 등과 함께 1975년 북미한국인권연맹을 만들고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빌링스를 비롯한 소속 활동가들의 열정 덕분에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도 자문을 구할 정도의 위상을 갖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 단체가 1978년에 한국의 인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 인권 상황 보고서는 당시 카터 행정부의 한국 인권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5-18 당시 광주는 국내적으로 고립되었으나, 북미한국인권연맹의 활동이 보여준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이미 단단한 연대의 끈을 이어가고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빌링스 여사와 같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광주는 이런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충분히 보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분이 묻힌 곳에 조화를 보내 예를 표시해야 한다. 폐기 빌링스 여사의 명복을 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